

# 어려운 말 쉽게 같이 쓰자

**의** 사들이 사용하는 용어나 진단서의 내용들을 보면 도무지 알 수 없는 기호들로 휘날려 쓰여진 글씨들을 볼 수 있다

의사들끼리 나누는 대화들에서도 질병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이해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환자 입장으로서 하나라도 더 알아서 처방하고 싶은 심정하기에 답답함은 더하다.

지식을 공유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요즘 화제가 된 책 『한국 의사들이 사는 법』에서도 쓰고 있는 것처럼 한국에서 의사라는 신분은 좀 특별하다. 그들끼리의 응집력이 강하고 초엘리트들의 집단이라는 면에서 일반인들보다는 사회적 명성이 높은 사람들로 이들의 주장이 사람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그 집단의 영향력이 강하다는 데 있다.

이들의 영향력이 강한 이유는 무엇인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에게 왕이나 황제도 이들을 함부로 하지 않았다. 차이는 있겠지만 오늘날에도 의학적인 지식이 풍부하지 않은 일반인들에게 자신들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은 잘되면 생명의 은인이요, 잘 안 되도 이유를 알 길이 없는 사람들에게 의사의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모른다는 데에 있다.

그들이 진단서에 휘날려 쓴 기호들의 뜻을 모르고 그들이 사용하는 용어는 신체 어느 부위의 질병을 말하는지 모른다는 데 있다. 그러니 병원에 가면 가벼운 병이라도 일단 알 수 없음을 인해 그들이 어떤 횡포를 부린다 해도 어찌하겠는가? 모르는 게 죄인걸...

그래서 지식을 공유하는 게 중요한 것이다. 소수 전

문직의 특징은 바로 소수만이 그 정보를 공유하는 데 있다. 전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중독 시켜 놓은 코카콜라의 비법을 아는 사람은 단지 몇 사람에게 불과하다는 것이 기업을 초재벌로 만들어 준 것처럼 말이다.

그 지식을 같이 공유하는 방법은 우리가 전문의학 용어에 대해 알고 있거나 아니면 그 용어를 아예 일반인들이 알기 편한 용어들로 바꾸어 놓는 방법일 것이다. 그런데 의사가 아닌 일반인들에게 희소식이 들려 온다.

이번에 통계청은 7월 26일 어려운 한자로 기술된 질병 관련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개정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힌 것이다.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는 우리 나라의 모든 질병·상해 및 사망 원인에 관한 기록자료를 집계·분석하는 공식적인 기준으로, 각 병원의 의사가 교부하는 진단서 및 의료비용 청구서, 병원 의무기록에 기재되는 병명 분류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번에 변경되는 용어는 질병 명칭과 관련 용어를 합쳐 모두 637건으로, 한자어나 라틴어 일본식 표현으로 기술돼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이번에 개정되는 용어들로 인해 질병관련 용어를 현실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이 크게 증진되고 국민의 의료 정보 전달이 수월해 질 것이다

이런 시도가 처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대한해부학회에서 의학용어를 쉽게 풀이한 사전을 낸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은 공적 기관의 발표에 따라 대대적

으로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더 크다

모든 재화가 공급자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바뀌는 가운데 용어 및 질병 명 개정으로 이용자의 편의가 크

게 증진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주요 용어는 다음과 같다.

변경되는 질병 명

현행	개정
트리코모나스 증	편모충 증
혈전성 정맥염	정맥 혈전증
자궁주위염	자궁주위조직염
사두증	쏟린머리증
범심염	전층 심장염
제염	배꼽염
의치증	치아부족증
유양 돌기염	꼭지염
악골후퇴증	턱후퇴증
맥립증	다래끼
유류증	젖흐름증
취한증	땀악취증
산립증	콩다래끼
누낭염	눈물주머니염

변경되는 질병관련 용어

현행	개정	현행	개정
안검	눈꺼풀	만곡족	곤봉발
누도	눈물길	한진	땀띠
심혈관	심장혈관	고관절	엉덩관절
흉곽	가슴	슬관절	무릎관절
빈맥	빠른맥	쌍태	쌍둥이
연하곤란	삼킴곤란	요추골	허리뼈
공장	빈창자	늑골	갈비뼈
액와	겨드랑	상악골	위턱뼈
이개	귓바퀴	하악골	아래턱뼈
누기	눈물기관	안검하수	눈꺼풀처짐
하지	다리	요폐	소변축적
타액선	침샘	검자	집게
건	힘줄	천명	쌩쌩거림
담낭	쓸개(담낭)	맹출	이돋이
안각	눈구석	상순	윗입술